



여름철 기생충병 대책

서울농업대학교수 김 영 섭

1) 닭겨모기

닭겨모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모기”하고는 전혀 형태가 다른 것이다. 즉 체장이 1mm 내외의 미소한 곤충으로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방적으로 다르게 인축(人畜)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닭겨모기는 야간에 계사에 들어와 닭으로부터 흡혈을 하게되고 이와 동시에 「류코사이토준 병원충」을 닭에다 매개하여 이충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닭겨모기는 여름철에 있어서의 유충기간은 약 1개월이고 1~3일의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된다.

그리고 이 닭겨모기의 크기가 일반 모기의 수십분의 일인데도 자극성 및 흡혈에 있어서는 더욱 큰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류코사이토준병을 매개하는 닭겨모기의 종류는 「쿠리고이디스 스키모도(아라가와)」이다.

구체법으로서는 발생원의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해서 완전 살멸하는것은 기대할수 없다. 그러나 닭겨모기가 일단 계사내에 들어와서 흡혈한 후에 날이 밝아지면 계사의 천정, 벽틈, 기타 어두운 곳에서 휴식하게 되므로 이와같은 곳에 잔효성이 높은 D.D.T. 제제를 산포하는것이 좋다. 야간에 있어서는 “등화장치”를 해서 모여든 닭겨모기 기타 곤충을 잡는 방법등이 있다.

류코사이토준병의 예방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폐사개체가 생기기 쉬운 12~30일령의 병아리의 육성기에 있어서 더욱 박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닭푸라스모디움병(닭마라리아)

이 병이 처음 알려진것은 195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연감염예가 보고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2년 닭으로부터 이 병의 병원충(푸라스모디움)을 이기풍 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생보고가 있었다.

이 병도 역시 류코사이토준병과 같이 닭에 있어서는 중요한 병원충의 하나이다.

닭과 그밖에 조류에 있어서 발견된 닭푸라스모디움의 병원충은 17종의 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푸라스모디움 가리나시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병아리에 감수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서 성체에서도 80%까지 폐사한다. 이 병에 걸리면 점점 쇠약해지고 빈혈, 비장과 간장이 증대되거나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병원충을 매개하는 흡혈곤충은 집모기, 숲모기, 학질모기등의 “모기”가 알려지고 있다.

이 모기는 닭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타 동물로부터도 흡혈하게되고 다른 여러가지 질병을 매개하는 것이다.

이 병의 예방대책과 치료 방법으로는 매개하는 모기를 박멸하는 방법이며 살충제를 산포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계사 출입문이나 창에다 모기장 장치를 하는것도 더욱 이상적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이 병원충이 닭체내에서 발육하는 여러 형태,

시기, 원충의 종류 등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요법으로서는 화학요법으로 항마라리아제, 켈파제 등이 응용되고 있다.

3) 모 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종류의 모기가 알려져 있으나 닭을 잘 흡혈하는 모기는 무엇보다도 보통있는 종류는 집모기, 숲모기, 학질모기 등이 있다.

이들 모기는 사람이나 가축에 덤비며 닭에도 단연 많이 덤벼 흡혈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 자체에 있어서도 닭의 혈액은 영양가가 높고 닭 혈액을 먹으면 무엇보다도 많은 모기알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모기는 흡혈만 하는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닭의 질병 즉 「계두」 「닭스피로체타」 「닭푸라스모디움」 등을 옮기며 사람과 가축은 물론 자연계 조류에 까지도 널리 감염성을 가지는 「일본뇌염」의 매개자로서도 유명하다.

이들의 모기는 야간에 주로 흡혈하므로 닭이 충분히 수면하지 못하게되며 여름철에 있어서 산란저하는 흡혈곤충이 원인이되어 피해를 가져

오기도 한다.

구제대책으로는 발생원인 하수구, 담수, 물논 등으로서 모두가 사람이 만든환경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기를 위해서 서식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불필요한 발생원환경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닭만을 위해서 구제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사람과 가축에 공통되는 위생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괄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살충제를 사용해서 발생원에 모기유충인 장구벌레를 구제하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장구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30% D.D.T 유제의 30배액을 50ml/m²로서 10일에 1회정도 산포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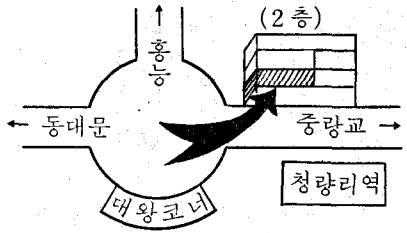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도 전국적으로 동일 시기에 일제히 대규모적으로 실시하지 않는한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일이다. 이미 계사내에 침입한 모기는 계사내 온도 및 환기장치를 고려해서 살충제를 산포하는 것이 좋겠다.



양축가의상담실

청량리가축약품센터

- 飼料添加劑
- 予防및治療劑
- 予防백신(마력병, 뉴캐슬, 계두)
- 獸医用器具(최신 연속 주사기)
- 飼料및 병아리購入轉旋



청량리가축약품센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58
전화 : 97-2538